

# “냄새나고 부유물 똥똥... 강물 흐르게 해주세요”

##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참가 학생들이 본 현장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 오염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29일 영산강 살리기 탐사에 나선 광주·전남지역 32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117명은 영산강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도의 젓줄’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학생들은 흙탕물로 뒤덮이고 밀려온 부유물로 가득한 영산강의 오염 현장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라는 말이 학생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호남의 젓줄’, ‘남도의 젓줄’이라는 영산강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이상 회복하기 힘든, 신음하는 원자로만 비쳐지는 듯했다.

광주·전남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제9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참가학생들은 29일 영산강 하굿둑에서 출발, 영산호 등을 둘러봤다.

영산호를 찾은 학생들은 코를 막고 눈을 찌푸렸다. 간밤에 내린 장맛비로 상류로부터 떠밀려온 온갖 부유물질로 가득한 영산강에서 푸른 강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산호는 검은 흙탕물과 쓰레기들로 뒤덮여 하굿둑에 막혀 흐리지도 않고 멈춰선 채 잠을 수 없는 악취를 뿜어냈다.

앞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

위원회 등은 영산강 2곳에서 유속을 조사한 결과, 측정 한계치인 2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탐사대 활동을 했던 노제형(20·광주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1년)씨는 “흙탕물처럼 보이지만 영산강 상류부터 흘러온 부유물질로 뒤

덮인 것”이라며 “강물이 흐르지 못하니 강 바닥으로 가라앉아 퇴적될 것”이라며 동료들에게 설명해줬다.

탐사대를 이끄는 홍기혁(55) ‘모래톱’회장은 “퇴적된 부유물질은 땀의 형태로 변해 가라앉고 부패가 진행돼 강물을 오염시키고 햇볕이 뜨거우면 여름철이면 퇴적돼 있던 부유물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등 하천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4박 5일간 영산강 곳곳에서 습지탐사, 하천조사, 자생식물 등을 찾아보며 영산강의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산강 탐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젊은 아이디어도 토론 과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29일 오전 광주·전남지역 학생 200여명 등으로 구성된 ‘영산강 대탐사’대원들이 목포 카누경기장을 시작으로 영산강변을 직접 걸으며 강의 생태환경 등을 탐사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해질 19:38  
달출 08:30 달짐 21:12

“짬뽕더위”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 지역별 날씨 (도)

광주	구름많음	23/33	보성	구름많음	22/31
목포	구름많음	23/30	순천	구름많음	23/32
여수	구름많음	24/29	영광	구름많음	22/32
나주	구름많음	23/33	진도	구름많음	23/31
완도	구름많음	23/31	전주	구름많음	22/32
구례	구름많음	21/32	군산	구름많음	22/31
강진	구름많음	22/31	남원	비	21/32
해남	구름많음	23/32	흑산도	구름많음	22/28
장성	구름많음	22/3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0.5	북동~동	0.5~0.5
남부	면바다	남동~남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해	면바다	동~남동	1.0~2.0	북동~동	1.0~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15	16:18	09:28	21:28	
	10:50	23:13	04:42	16:51	
여수	04:15	16:18	09:28	21:28	
	10:50	23:13	04:42	16:51	

#### 주간 날씨

31(목)	8/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	☁	☁	☁	☀	☀	☀
25/32	25/33	24/31	25/33	25/33	25/32	25/33

#### 생활지수

식중독	58
운동	40
빨래	70

24면 증면 발행...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0.1g 모기 공격에 “1.2t 코끼리 살려”

### 우치동물원 어미 코끼리 밤새 시달리다 낮잠 쿨쿨

광주 우치동물원의 최고 거구인 어미 코끼리의 행동이 요즘 이상하다.

몸무게 1.2t·키 2m인 코끼리의 경우 대낮에 야외방사장 바닥에 드러누워 낮잠 자는 게 흔치 않는데, 최근 이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것이다.

코끼리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사육사와 수의사들은 코끼리의 건강 이상을 의심하고 며칠간 하루 식사량을 체크했다. 확인 결과, 건초(30kg)·사료(10kg)·건빵(3kg)·당근(5kg) 등으로 평소 먹는 양과 비슷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고민에 빠진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다른 동물원의 코끼리 사육일지를 찾아낸 뒤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코끼리는 간혹 드러누워 잠을 청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이들은 주변 환경을 둘러본 뒤 고개를 가웃 거릴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주변 환경에 적응했다라든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코끼리는 야외방사장이 아닌 조용한 내실에서 잠을 자기 마련인데, 이 코끼리는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대낮에 야외방사장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다시 며칠 밤낮으로 코끼리를 유



심히 살았고 마침내 원인을 발견했다.

밤에 코끼리가 내실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뒤척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그리고 다음날이면 코끼리 몸에선 모기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고 여전히 야외방사장에서 낮잠을 잤다.

1.2t의 코끼리가 밤새 0.1g도 안 되는 모기 때의 공격으로 밤잠을 설친 뒤 관람시간에 맞춰 야외방사장 문을 열어주면 도망치듯 빠져나와 낮잠을 잔 것이다.

또 날이 밝으면 모기들도 대부분 철수(?)하기 때문에 내실에서 잠을 자도 되지만 이 코끼리는 밤새 내실에서 모기에 시달린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낮잠 장소로 내실보다 야외방사장을 택한 것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코끼리가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꼴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전남경찰청, ‘6급 변호사’ 구하기 힘드네

### 광주청은 임기제 6급 채용

몸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년 보장이 안 되는 ‘6급 변호사’는 전남에서는 아직 이렇까.

전남지방경찰청은 법제·소송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채용시험 공고를 응시자가 없어 중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청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게 되는데다, 최장 5년까지 근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내심 로스쿨을 갔나온 변호사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까지 시장에 진출, 치열한 선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향후 ‘행정소송 전문’ 경력을 활용, 개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기회’라는 얘기가 전

남청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 지난 6월 16일 첫 공고 이후 서류 제출자가 한 명도 없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29일 최종 합격자 발표도 없었다.

전남청은 “알려진 변호사 수입에 비해 많지 않은 보수, 광주에 비해 먼 이동거리, 숙박 문제 등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광주청은 이날 전남대 로스쿨 출신 오모(37)씨를 법제·소송업무 담당 임기제공무원(6급)으로 채용해 발표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2년 이상 경력직 변호사 20명을 경감(일선 경찰서 팀장급·행정부 6급 상당)으로 채용해 교육중이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제12회 신안 민어 축제

## 8.2(토) ~ 8.3(일)

### 임자 대광해수욕장



| 문의전화 | 임자면사무소 : 061.240.3574 / 농협매포소 : 061.275.7303